

이양지의 문학 연구(Ⅰ)

- 정체성 인식의 양상

강 영 기*

목 차

- I. 서 론
- II. 이양지의 삶과 문학
- III. 이양지 문학에 나타나는 정체성 인식의 양상
- IV. 결 론

I. 서 론

재일한국인 문학은 '재일'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실존적 상황에서 생겨난 문학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재일한국인 문학의 고뇌는 그들이 형상화하는 작품 내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재일한국인 문학의 현실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문제와 만난다.

지금까지 재일한국인 문학은 크게 1세대¹⁾, 2세대²⁾, 3세대³⁾로 나누어 고찰된다. 1세대 문학의 주요 내용은 조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현실과 그것에서 파생된 이념의 갈등 또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일한국인의 삶을 다룬다. 한편, 2세대 문학은 1세대와는 달린 귀화 문제, 재일한국인의 겪는 연애, 결혼 문제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재일한국인 3세대 문학은 재일한국인 2~3세가 겪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그려낸다.

재일한국인 문학 1세대, 2세대, 3세대의 공통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의 작품속에 민족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재일한국인 개별 작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관광대학 강사

- 1) 재일한국인 1세대 문학가로는 김달수, 김석범, 이인직, 장두식 등이 있다.
- 2) 재일한국인 2세대 문학가로는 김학영, 이희성 등이 있다. 하지만, 평자에 따라서는 이양지를 2세대 문학가로 넣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양지를 3세대 문학가로 분류한다.
- 3) 재일한국인 3세대 문학가로는 양석일, 이양지, 유미리, 이기승 등이 있다.

가는 작품을 통해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재일한국인 문학 3세대인 이양지의 문학을 통해 그것을 살펴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에서 나타난 이양지 문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김환기는 이양지의 문학적 특징을 “재일 현세대의 정신적 불안감을 현실 부정과 피해 의식으로 구체화하면서 이를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한 자아 의식으로 끌어올렸다⁴⁾”고 평한다.

또한 유숙자는 “자신에게 문학적 동기를 부여하고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한 모국체험을 비교적 오래 지닌 작가⁵⁾”로 평한다.

한편, 강윤신은 “민족적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거대담론의 논의틀보다는 민족적 정체성만으로 수렴될 수 없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양지의 소설⁶⁾”이라고 본다.

이렇듯, 한국문학 논자들의 논의에 나타나는 이양지 문학의 특징은 모국체험을 통한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문학 논자들은 작가가 지닌 자아 정체성 찾기를 시도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문학 논자들의 이양지 문학에 대한 공통적 특징인 정체성의 문제를 그녀의 작품을 통해 ‘조국’이라는 정체성의 형성 양상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녀의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 인식의 과정을 구명함으로써 재일한국인 문학이 한국문학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현재 재일한국인 문학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이양지의 삶과 문학

이양지는 1955년 3월 15일, 이두호와 오영화의 장녀로 출생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야마나시현의 후지산 아래 형성된 전형적인 시골동네이다. 그래서 주변에는 한국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녀를 한국과는 별개로 인식하며 자라게 했다. 또한 그녀의 부친은 그녀가 9살 때 일본으로 귀화하였기 때문에 한국과는 무관했다.

하지만, 이양지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오키(鴨沂)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이다. 이 학교에서 만난 가타오카(片岡秀計) 선생은 일본사 첫 시간에 “나는 역사를 사랑하는 일본의 역사 교사로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해야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사를 논한다는 것은 조선사를 논한다는 일이 되며, 특히 일본 근대사는 조선사와의 관계 없이는 성립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⁷⁾라는 말을

4) 김환기, 「이양지 문학론-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찾기」 『일어일문학연구』(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5)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월인, 2000).

6) 강윤신, 「이양지 소설 연구」(동국대 석사논문, 2003).

7) 이양지, 「이양지전집」(講談社, 1993), p. 217.

한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열등 의식⁸⁾을 비롯한 가정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중퇴했었기 때문이다.

가타오카 선생을 통해 이양지는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한국에 대한 혹은 민족에 대한 애착은 조국 체험에 이르게 한다. 그녀가 행한 일련의 조국 체험⁹⁾은 그녀의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문학으로 표출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나비타령」, 「각(刻)」, 「유회(由熙)」이다.

「나비타령」은 부모의 별거로 이혼을 앞둔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이 조선인 차별에 대한 도피처로서 가야금과 판소리를 접하게 된 후 한국에서 자기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은 서울에 유학온 이순이라는 재일한국인 2세가 우리말을 배우는 한편 방과후에는 가야금과 무용학원에 다니는 등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의 일상이 그려진다. 동시에 순이의 모국생활의 긴장을 들려준다. 이미 일본적인 문화와 습관에 더 익숙해져버린 순이의 모국 체험에서 모국(사람)을 대하는 순이의 이중적 성격을 작가는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본은 물론 모국에 와서조차 이방인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재일한국인의 정신적 고뇌를 들려준다.

「유회」는 모국 유학 도중 대금소리와 한글에 크게 애착을 느껴오던 주인공이 여러 갈등으로 인해 말을 잃고 자폐증세를 겪다가 자신의 위선적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귀국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렇듯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경계자로서의 삶을 산 이양지는 그의 문학에서 민족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형상화한다. 그녀는 소설 작품을 통해 재일한국인의 모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또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들이 설 땅과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집요하게 모색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1992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돌의 소리」를 집필하던 중 감기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죽는다. 「돌의 소리」는 10장에 이르는 방대한 장편소설로 구상되었으나 그 중 제1장으로 유작이 되었다.

8) 이양지는 유년시절까지 김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한국말을 들을 기회도 전혀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오사카(大阪)에 사는 친척들과 한국사람이 사는 동네 풍경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인(朝鮮人)'이란 부끄러운 것, 혹은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느끼었다. (강윤신, 앞의 논문, pp. 22~28.)

9) 이양지는 1980년 가야금 병창 박귀희 선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 유학에 오른다. 1981년 재외국민교육원의 일 년 간의 과정을 마치고 1982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다. 그리고 그녀는 오전에는 무용, 오후에는 가야금, 그리고 저녁부터는 「나비타령」을 집필한다. 1988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에 입학한다. 그리고 1992년 이화여대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다.

Ⅲ. 이양지 문학에 나타나는 정체성 인식의 양상

이양지는 재일한국인임을 자각한 후 일본에서의 갈등, 그리고 한국으로의 유학에서 생겨난 한국에서의 갈등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나비타령」(1982), 「해녀」(1983), 「오빠」(1983), 「각」(1984), 「그림자 저쪽」(1985), 「갈색의 오후」(1985), 「유희」(1988), 유작인 「둘의 소리」(1992)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비타령」, 「각」, 「유희」를 중심으로 그녀가 문학을 통해 나타낸 갈등과 고뇌의 한 요소인 '조국'이라는 정체성과 그것의 형성 양상을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소리'를 통해 살피기로 한다.

1. 경계인으로서의 인식

재일한국인의 일상은 다분히 일본적이다. 하지만, 외부에서의 차별과 편견은 오히려 가정 내적인 단결을 가져와 전통을 유지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일한국인이 지닌 정체성의 인식에는 다분히 경계인으로서의 인식이 존재한다. 여기서 경계인이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사회에 편입하려 하나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편입하려 하나 그러지도 못하는 중간자적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계인적 정체성 인식은 이양지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선생님, 저희들은 재일동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일본어에 둘러싸여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동화와 풍화를 강요당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는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실체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멸시를 당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의 서투른 면만 지적당하다 보니 흥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잖아도 자신의 출신에 대해 객관시킬 수 없고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들은……”¹⁰⁾

인용 글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재일한국인의 고초가 담겨져 있다.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일본어에 둘러싸여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 속에서 일본은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으로의 동화 또는 풍화를 강요한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은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그들은 재일한국인이라는 열등 의식에 시달린다. 이와는 반대로 재일한국인은 한국 사회 속에서도 멸시를 당한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의 서투른 면만 지적당하다 보니 흥이 나질 않습니다.”라는 진술처럼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해도 한국인이 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일한국인

10) 「각」, 앞의 책, pp. 163~164.

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계인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계인적 인식은 이양지의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도 겁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일본' 냄새를 풍기는 기묘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중략) 일본에도 겁먹고 우리나라에도 겁먹고 당황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디가면 마음 편하게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11)

인용 글에 등장하는 '나'의 내면 심리는 앞에서 언급한 경계인적 정체성 인식에 기인한다. 그래서 "일본에도 겁먹고 우리나라에도 겁먹"은 상태에 놓인다. '나'가 지닌 경계인적 정체성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다. 하지만, '나'가 처한 현실에서는 "마음 편하게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곳이 없다. '나'는 "일본에도 겁먹고 우리나라에도 겁먹"은 경계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은 단지 인용 글에 등장하는 '나'만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재일 한국인의 겪는 문제이다. 다음에 인용한 글은 이러한 모습을 그려낸다.

"순이, 나도 우리나라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

"재일이란 업보야. 한국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 할 때가 있는 반면 웬지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어."

"그래."

나는 솔직히 수긍했다. 춘자의 말에 처음으로 그녀의 몸, 그녀의 체취를 느꼈다. 춘자에게도 무수한 나, 무수한 일인칭이 뒤엉켜 있음에 틀림없다.12)

인용 글에 등장하는 "순이"이와 "춘자"의 대화에는 경계인으로서 정체성을 느끼는 인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재일이란 업보야."라는 인식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에게 한국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 할 때가 있는 반면 웬지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인적 인식은 인용 글에 등장하는 "순이"와 "춘자" 모두가 겪는 인식이다. 그래서 "순이"는 "춘자에게도 무수한 나, 무수한 일인칭이 뒤엉켜 있"다는 재일한국인의 지닌 공통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상을 통해 재일한국인 사회에 내재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이양지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경계인적 정체성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이를 통해 이전 재일한국인 문학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민족성 회복

11) 「나비타령」, 앞의 책, p. 53.

12) 「각」, 앞의 책, p. 214.

이라는 문제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느끼는 경계인적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2. 소리를 통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

이양지의 소설에 나타나는 정체성 찾기는 소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다루려는 그녀의 정체성은 소리를 통해 형성되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이다. 그것은 모국어와 관계된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단행한다. 하지만, 그 유학 생활이 그녀가 일본에서 느꼈던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그녀의 작품 속에서 조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인용한 글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학교에서나 거리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한국말이 내겐 마치 최루탄처럼 들려요. 맵고 쓰고 들떠 있어 듣기만 해도 숨막혀요. 어느 하숙집이건 모두 내가 싫어하는 한국말을 사용했어요. 다 좋아요. 멋대로 방에 들어와 몰래 커피를 가져가거나, 책상에 놓인 펜을 가져가든, 옷을 맘대로 입고 가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행동이 싫은 건 아니에요.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주어 버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싫어져요. 몸짓이라는 목소리, 시선이라는 목소리, 표정이라는 목소리, 몸이라는 목소리……참을 수 없고 마치 최루탄 냄새를 맡은 것처럼 괴로워져요.¹³⁾

인용 글에 나타나는 '유희'의 조국에 대한 정체성은 부정적이다. 그것은 “멋대로 방에 들어와 몰래 커피를 가져가거나, 책상에 놓인 펜을 가져가든, 옷을 맘대로 입고 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보다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 그것은 '유희'를 둘러싼 한국이라는 환경이 만든 자아와 조국 사이에 생겨난 정체성의 혼란이며, 문화적 충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희'에게 “한국말은 마치 최루탄”이 된다. 그래서 맵고 쓰고 숨이 막힌다.

유희에게 한국어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싫어져요. 몸짓이라는 목소리, 시선이라는 목소리, 표정이라는 목소리, 몸이라는 목소리”를 통해 “참을 수 없고 마치 최루탄 냄새를 맡은 것처럼 괴”롭게 만든다. 이러한 모국어가 지닌 소리에 대한 괴로움은 결국 유희가 지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이끈다. 다음에 제시한 글 역시 그러하다.

타고 있는 승객에 섞여 물건파는 남자가 올라 타, 입구 근처의 우리가 앉은 좌석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흔들리는 버스 안의 좌석을 휘둘러 보면서 손에 든 상품인 휴대용 작은 나이프를 쳐들고 독특한 어조와 억양으로 계속 떠들어댔다.(중략)
조금씩 고개를 숙이며 이를 악물고 있던 유희가 돌연 폭 하고 머리를 무릎 위에 떨어 뜨리고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나는 유희의 등을 덮어 씌우듯 어깨를 감싸안고 세계 귀를

13) 「유희」, 앞의 책, p. 437.

틀어막고 있는 손을 잡았다.¹⁴⁾

인용 글에서도 유희가 겪는 문화적 충격이 나타난다. 그것은 버스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의 출현과 관계된다. 일본에서는 버스에서 물건을 파는 장면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물건을 파는 장면은 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이라는 문화적 차이는 모든 것을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희에게는 문화적 충격이 된다. 그래서 유희는 버스 안에서 “돌연 폭 하고 머리를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귀를 막”는 행동을 한다. 유희가 기대한 모국어는 대금소리와 같은 낮고 조용하며 여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희가 조국에서 느끼는 현실의 소리는 대금소리와는 정반대이다. 이렇게 유희가 느끼는 모국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국어의 소리와 조국의 현실적 소리의 차이는 결국 유희에게 조국이라는 정체성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언니와 아주머니의 한국말이 좋아요.....이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 계속 머무른 보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집에¹⁵⁾

인용 글에는 유희가 지닌 조국에 대한, 모국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잘 드러낸다. 유희가 느끼는 한국말은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국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대금소리와 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소리이다. 그 소리는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유희가 하숙하는 집에서 들리는 언니와 아주머니의 소리이다. 이러한 유희의 언어관의 차이는 결국 “나는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집에”를 통해 유희가 지닌 조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양지는 그녀의 작품 「유희」에서 한국어 습득의 과정에 있는 ‘유희’라는 인물의 겪는 정신적 갈등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모국어를 통해 자신의 지닌 조국이라는,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함께 들려준다. 그녀가 생각하는 모국어는 그녀를 비롯한 조국을 찾은 재일한국인에게 언어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조국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이라는 현실의 소리와 일본에서 상상했던 조국의 소리를 분명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는 그녀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을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한다. 그들의 지닌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 조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으로 나타난다.

14) 「유희」, 앞의 책, pp. 422-423.

15) 「유희」, 앞의 책, p. 431.

3. 소리를 통한 긍정적 정체성 인식

이양지의 또 다른 정체성 인식의 양상은 소리를 통한 긍정적 '조국' 인식이다. 그녀에게 조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 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국의 소리이며, 한국적 전통이 담긴 가야금 가락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조국을 피부로 느낀다.

한국에도 가야금이 있나요?

자트 스무 살이 된 어느 날, 나는 한 여대생에게 물었다. 반독재, 반외세, 반사대 그런 단어 밖에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소리가 있다.¹⁶⁾

인용 글은 「나비타령」에서 애자가 조국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애자에게 가야금 소리는 1980년대 한국 상황의 만든 소리가 아니라 전통을 통해 형성된 한국적 이미지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의 이항대립 속에서 애자는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이러한 그녀의 욕망은 조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며,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1천 5백년 전부터 계속 타왔다는 가야금을 탈 때마다 먼 실감 없는 말만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음색이 확실하고 굵은 밧줄이 되어 나와 우리나라를 한데 이어준다. 한선생 댁에서 몇 시간 지낸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우리나라였다. 그곳에선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좋았다. 두 시간, 세 시간, 연습이 끝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¹⁷⁾

가야금은 '나'와 우리나라를 맺어주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가야금을 탈 때는 먼 실감 없는 말만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음색이 확실하고 굵은 밧줄이 되어 나와 우리나라를 한데 이어준다. 이러한 나의 인식은 결국 '나'가 느끼는 조국이라는 정체성의 확인이다. 모국어가 지닌 정체성이 '나'가 지닌 부정적 인식이라면, 가야금 가락을 통해 느끼는 정체성은 '나'가 지닌 긍정적인 정체성 인식이다. 그래서 나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으로 "두 시간, 세 시간, 연습이 끝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글은 소리(한국적 전통)를 통해 조국에 대한, 자아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장면이다.

우리나라는 살아있다. 풍경은 변천된다. 나는 그 속에서 가야금을 타고, 판소리를 하고, 살풀이 춤을 춘다. 나는 그런 모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가야금 선율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하얀나비가 날기 시작한다. 나는 눈으로 나비를 뒤쫓으며 살풀이를 추었다. 끊임없이 가야금은 울동하고 불어대는 바람 속에는 수

16) 「나비타령」, 앞의 책, p. 31.

17) 「나비타령」, 앞의 책, pp. 31~32.

전이 날아 올랐다.¹⁸⁾

가야금 소리, 판소리, 그리고 살풀이 춤을 통한 한국적 전통은 '나'에게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는 자아와 '나의 조국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나'가 지닌 조국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 인식이다. 한편, '하얀나비'는 '나'가 지닌 자아정체성이다. 작가는 "가야금은 울동하고 불어대는 바람 속에는 수건이 날아 올랐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지닌 긍정적 자아정체성 찾기가 성공하였음을 들려준다.

이상을 통해 나타나는 소리를 통한 긍정적 정체성 인식은 재일한국인에게, 또는 이양지에게는 자기 찾기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조국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작가의 이러한 인식은 결국 '재일'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사회 속에서 형성된 재일한국인의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IV. 결 론

이양지는 그녀의 문학을 통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의미와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과 선입관도 갖지 않고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대"¹⁹⁾하는 삶의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재일한국인은 한국을 사랑할 수 있고,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재일한국인이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줄곧 갈구해왔던 은근한 바람이다. 그 바람은 나에 대한 또는 조국에 대한 정체성이 성립할 때 가능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양지 문학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양상은 크게 둘로 나타난다. 하나는 경계인으로서의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소리를 통한 인식이다.

경계인으로서의 인식은 재일한국인 또는 재일한국인 문학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양지의 문학 역시 그렇다. 그녀는 경계인적 정체성을 작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전 재일한국인 문학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민족성 회복이라는 문제에서 한 단계 발전한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느끼는 경계인적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문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양지는 '소리'를 통해 조국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난다. 소리를 통한 정체성의 부정적 인식은 모국어와 관련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모국어는 그녀를 비롯한 조국을 찾은 재일한국인에게 언어 이상의 큰 의미를

18) 「나비타령」, 앞의 책, p. 60.

19) 「富士山」, 앞의 책, p. 624.

지낸다. 그것은 조국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이라는 현실의 소리와 일본에서 상상했던 조국의 소리를 분명 차이를 지낸다. 이러한 차이는 그녀를 포함한 재일 한국인을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 조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 인식을 형성한다.

이양지의 '소리'를 통한 정체성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가야금 소리로 상징되는 한국의 전통과 관련한다. 이 속에서 그녀는 조국의 소리를 통해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소리를 통한 긍정적 정체성 인식은 재일한국인에게, 또는 이양지에게는 자기 찾기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조국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작가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재일'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재일한국인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과정의 한 양상으로 이양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양지를 통해 재일한국인 문학을 살핀 궁극적인 이유는 재일한국인 문학을 담당할 개별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기 위함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재일한국인 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넣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 글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양지의 작품인 경우에도 비록 작품은 일본어로 썼지만, 한국의 정서와 한을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이라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양지. 『이양지전집』, 講談社, 1993.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기. 「문학에 나타난 '재일한국인' 인식 고찰」 『한일민족문제연구-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강운신. 『이양지 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3.

김환기. 「이양지 문학과 전통 '가락」 『일어일문학연구-45』, 한국일어일문학회, 2003.

김환기. 「이양지 문학과-현세대의 '무의식'과 '자아'찾기」 『일어일문학연구-43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김환기. 「이양지의 『유회』론」 『일어일문학연구-41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02.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윤명현. 「이양지 문학과 조국」 『일본학보-53』, 한국일본학회, 2002.